

‘이자 장사’ 잘한 은행들 상반기 이자이익만 11조

시중은행 4곳 이자이익 11조280억원...1년새 14% 증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이 올 상반기에만 11조원을 훌쩍 넘겼다. 대출 증가세가 계속된 가운데 예대마진 증가에 힘입은 은행들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순항하는 모습이다.

25일 금융사들의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4곳의 이자이익은 모두 11조28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이들 은행 4곳의 이자이익을 합한 규모가 약 9조6629억원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1년새 1조3651억원(14.1%) 가량 불어난 것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2조6644억원에 달한 이자이익이 올 상반기 2조9675억원으로 3031억원(11.4%) 늘었고,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2조3810억원에서 2조7140억원으로 3330억원(14%) 증가했다. 우리은행도 2140억원(8.4%) 늘었고, 하나은행은 2749억원 늘어 11.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늘어난 것은 올 상반기에도 여전히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부터 점차 강화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예년에 비해 가계대출을 크게 늘리지 못했으나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을 늘렸기 때문이다.

특히 예대마진 확대에 은행들의 수익 호조에 영향을 줬다. 지난 5월 기준 전체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는 2.34%로 벌어진 상태다. 지난 2014년 11월(2.36%p) 이후 3년5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4월(2.35%p)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면서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빠르게 올라간 탓이다.

덕분에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이 크게 좋아졌다. 하나은행의 순이자마진은 1.57%로 지난해 상반기(1.48%)보다 0.09%p 높아졌다. 신한은행(1.63%)과 우리은행(1.52%)도 각 0.07%p 올랐다. 국민은행도 1.71%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은행들이 여전히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의 당기순이익은 1조9150억원으로 지난 2008년 지주사 설립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순이익을 냈다. 우리은행도 1조3059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지난 2007년 상반기(1조3360억원 순익) 이후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하나금융도 1조3038억원의 순이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8억원(26.5%) 증가했고, 신한금융도 1조7956억원으로 경상이익 기준으로는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다만 이자이익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금융사들의 수익 구조는 조금 나아진 모습이었다. 금

융그룹들이 올 상반기 수수료 이익 등 비(非)이자 이익 부문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KB금융의 올 상반기 수수료 이익은 1조24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기록한 1조308억원보다 1939억원(18.8%) 확대됐다. 신한금융의 수수료 이익도 996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8% 뛰었고, 하나금융도 1조2031억원으로 22.1% 늘어났다.

뉴스

남성패장 ‘이색풍경’, 그녀는 왜 남자옷을 입을까?

광주신세계, 오버사이즈 핏 유행...원하는 디자인이라면 남성복 가리지 않아



(좌)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를 방문하는 여성 고객들이 남성복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백화점 남성패장에서 색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여성 혼자서 남성패장을 방문하거나, 커플이 방문하여 여성만 옷을 구매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나 남자친구, 혹은 자녀의 옷을 선물하기 위해 방문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광주신세계 ‘질스튜디오 뉴욕’ 브랜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선물용 구매가 아니라 매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입어보고 본인이 직접 입기 위해 구매해 가는 여성고객이 늘었다”며 “반짝 구매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구매하는 단골 고객들이 꽤 있다.”고 귀띔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남성패장에

서 옷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성준 광주신세계 남성패션 팀장은 “옷을 크게 입는 오버사이즈 핏의 유행에 따라 여자로 크게 입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버핏이 되는 남성복을 구매하는 여성 고객들이 늘어난 것”이라며 “또한 남성복은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이 많고 여성복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목직함과 투박함, 직선적인 매력이 있어 이를 찾는 여성 고객들도 많이 찾아온다”라고 말했다.

실제 여성고객들이 남성패장에서 자주 찾는 아이템으로는 봄/가을 시즌 블루종이나 맨투맨, 니트 등이 꼽혔다. 그리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은 티셔츠, 특히 그라픽이 독특하거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선보인 상품이 인기가 많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여성들이 입을면 자연스럽게 오버핏이 되는 티셔츠와 맨투맨, 블루종 등의 상품을 7층 남성패장에서 선보이고 있다.

김연숙 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오는 31일 출시

“최대 연 3.3% 금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다. 주택도시보증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가입요건을 완화해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은 오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

뉴스

공정위 “휴가철 숙박, 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5일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락형 피해 주요 사례를 보면, 숙박업소의 위생불량 및 관리 불량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불을 거부했다.

여행상품은 건강상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여행 중 관광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취소하고 쇼핑을 강요했다.

항공에서는 운항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명자료 없이 보상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데이트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저출산 통계 또 역대 최저...5월 출생아 2만7900명

1~5월 누적 출생아, 전년비 8.8% 감소

올해 5월 출생아 수가 2만7900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통계는 연일 ‘역대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7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2400명) 감소했다.

5월을 기준으로 보면 198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출생아 수가 가장 적었다.

출생아 수가 3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역대 통틀어 이번이 아홉 번째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2월(2만7500명)과 4월(2만7700명)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올해 들어 저출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셈이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4만

5300명으로 1년 전보다 8.8%(1만4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숫자가 36만8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출생아 통계는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3900명으로 1년 전보다 0.4%(100명) 증가했다. 사망자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3년 이래 5월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편 혼인 건수는 줄고 이혼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혼인 건수는 2만5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1%나 감소했다.



월별 출생아수 추이(단위:명)
자료: 통계청

올해 들어 혼인은 감소 추세다. 1~5월 누적 혼인 건수는 11만1800건으로 1년 전보다 3.3% 줄었다.

반면 5월 이혼 건수는 9700건으로 1년 전보다 4.3% 늘어났다. 1~5월 누적 이혼 건수를 봐도 4만41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했다.

뉴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